|  |
| --- |
| **Curriculum vitae (이력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원분야** | 웹 디자이너 | **희망연봉** | 회사 내규에 따름 |
|  | **성명(한글)** | 장 민 경 | **성명(영문)** | Jang min kyung |
| **생년월일** | 1999.11.20 | **휴대전화** | 010 - 5553 - 8499 |
| **E - Mail** | 12alsrud12@naver.com | **비상연락망** | X |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75 하얀마을주공6단지아파트(614-107) | | |

**Profile InfoⅠ(학력사항)**

|  |  |  |  |  |
| --- | --- | --- | --- | --- |
| **기간** | **학교명** | **학과(전공)** | **학점** | **졸업여부** |
| 2015-03-02  ~ 2018-02-07 | 불곡고등학교 | 인문계 |  | O |
|  |  |  |  |  |

**EducationⅠ(교육이수)**

|  |  |  |  |
| --- | --- | --- | --- |
| **기간** | **교육기관** | **과정명** | **시수** |
| 2024-04-24  ~  2024-09-10 | 이젠 컴퓨터 아카데미  (분당점) | [디지털디자인]UI/UX웹앱디자인(피그마[Figma])&프론트엔드(react.js) | 760h |
|  |  |  |  |

**EducationⅡ(교육내용)**

|  |  |
| --- | --- |
| **과정명** | **교육 내용** |
| 이젠 컴퓨터 아카데미 (분당점) | 피그마, 포토샵, HTML, CSS, JavaScript, jQuery |
|  |  |

**Certification (자격증, 수상내역, 장학금내역)**

|  |  |  |  |
| --- | --- | --- | --- |
| **자격증 & 장학금** | **발행처** | **취득년월** | **비고** |
| 한글파워포인트 C등급 | 한국생산성본부 | 2010-02-04 |  |
| 아래한글 B등급 | 한국생산성본부 | 2011-06-02 |  |
| GTQ그래픽기술자격 1급 | 한국생산성본부 | 2012-03-16 |  |

**Profile InfoⅡ(병역 및 취미, 특기)**

|  |  |  |  |  |  |
| --- | --- | --- | --- | --- | --- |
| **병역** | **면제사유** | **군별** | **복무기간** | **취미** | **특기** |
|  |  |  |  |  |  |

**Work Experience (인턴 및 근무 경력, 아르바이트)**

|  |  |  |  |
| --- | --- | --- | --- |
| **기간** | **회사명** | **직책** | **업무내용** |
| 2021-01 -30  ~ 2024-01-19 | 유디서현치과 | 어시스트 | 원장님 진료시 보조, 진료실 준비및정리, 치과재료 제고정리 |
|  |  |  |  |

**Volunteer (사회활동, 봉사활동)**

|  |  |  |  |
| --- | --- | --- | --- |
| **기간** | **소속단체** | **봉사활동처** | **봉사업무** |
|  |  |  |  |
|  |  |  |  |
|  |  |  |  |

|  |
| --- |
| **Self-introduction (자기소개서)** |

|  |  |
| --- | --- |
| **자기소개** | **[ 무엇이든 배움을 멈추지 않고 나날이 발전하는 디자이너 ]**  늘 책임감 있게 일을 처리하며 나에게 있는 부족함을 배움으로 채워나가는 것,  이게 바로 저희 좌우명이자 저를 소개하는 말입니다.  이전부터 어떠한 일을 해도 한번 시작하게 되면 끝을 보고  꼼꼼하고 책임감도 크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저라는 사람은 주어진 시간 내에 책임감 있게 일을 끝마치는 사람이고,  단순히 빨리빨리 눈앞의 일만 끝내기보다 최대한 꼼꼼하게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된다면 저는 제가 잘 모르는 것들을 공부하는 것을 즐깁니다.  평소 집에서도 제가 평소 흥미를 느끼고 있는 웹 디자이너 관련하여  학습 도서나 유튜브 등을 보며 혼자 공부를 하고 HTML, CSS 등의 코딩을 이용하여 사이트를 구현해 보면서 주로 여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를 배우며  어릴 적부터 취미 겸 특기로 가지고 있던 그림 그리는 것과 풍경 사진 등을 찍는 것도 좋아하여  그에 관련된 영상과 책을 보며 공부하며 캐릭터 그림을 그린다거나  또는 친구 캐릭터를 이용한 친구의 프로필 사진을 그려주는 등의 취미 겸 특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의 경우는 앱을 통한 간단한 보정을 하는 편인데 분위기 있게 잘 찍는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하였습니다.  결론은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늘 배움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즐기며,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눈에 보이는 성장을 하는 신입 디자이너가 되겠습니다. |
| **성장과정** | **[ 아주 어릴적부터 꿈꿔왔던 디자이너의 꿈 ]**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남들과는 다르게 그림 그리는 것과 책 읽기를 매우 좋아했었습니다.  하루 6시간씩 정도는 쭉 집중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림을 계속 그리며, 그 과정에서 그림을 독학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주변에서는 가장 잘 그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그림 업계로 빠지기에는 독학으로 배운 저로서는 조금 부족했기에 그림, 예체능 혹은 디자인과 관련 있는 다른 직종을 하고자 처음엔 3D max라는 3D프로그램 수업을 들은 적도 있었지만,  그 시기에는 취업이 잘 안되는 시기라 결국 취업을 위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서 치과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부터 꿈꿔왔던 그림, 예체능 관련 일을 향한 열망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퇴근 후에는 클립 스튜디오 같은 그림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SNS 활동들을 가볍게 좀 하다가  결국에는 한 번뿐인 인생 속 저의 마음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년 단위로 하던 계약도 마침 거의 만기가 되던 차에 일을 그만두고, 취업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예술성이 필요한 웹 디자이너, 퍼블리셔 관련 직종을 소개받아 처음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코딩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 같아 걱정을 많이 하였으나.  걱정한 것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굉장히 재미있었고, 배울수록 하고 싶은 게 많아 따로 공부도 하면서,  이 일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알아가며 내 손으로 이런 사이트를 구현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겐 큰 흥미와 재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훨씬 이전부터 꿈꿔왔던 디자인의 일을 도중에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집중력과 열정이 있습니다.  이렇듯 저는 성장을 거름삼아 보다 세상을 밝은 눈으로 바라보며,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굳건히 맡은 일을 해내며 아름다운 디자인을 하는 웹디자이너가 되겠습니다. |
| **성격소개** | **[ 맡은 일이 아무리 버거워도 결국에는 해내는 책임감 ]**  저는 전부터 성격이 급해서 자잘한 실수를 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실수를 스스로 깨닫고는 그 이후 부터는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실수를 줄이고 그로 인해 일을 할 때에는  점점 꼼꼼하면서도 일의 진행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찾아 단점을 장점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저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맡은 일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행해 내려는 책임감입니다.  학원에서 처음 웹디자인 수업을 시작하고. 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제가 팀장일 때도 아닐 때도 있었지만 어느 때든 저는 다 같이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제가 맡은 바를 완성하고도 집에서도 따로 공부하며 여러 번의 수정 보완을 거친 뒤,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작업물을 최대한 완벽하게 완성하고  그리고 그 외 팀원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과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따라올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기 싫을 때나 버거울 때가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책임감을 느끼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는 저희 팀이 가장 큰 점수를 따냈습니다.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학원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수준 높고 어려운 일을 진행하고 버거운 일도 만나겠지만.  어려운 게 있으면 도움을 받아도 그걸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추가로 학습하고,  제가 하는 부분은 책임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배우는 신입이 되겠습니다. |
| **직무역량** | **[ 다들 잘 모르던 때부터 노력과 열정만으로,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낸 열쇠 ]**  처음 웹 디자이너 관련 수업을 들으면서 두 번의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팀 프로젝트에서는 팀장을 기간 내에 돌아가면서 하기로 하였으나,  그 시절에는 수업 초반이라 아직 잘할 줄 모르는 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팀원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팀장이 다른 사람이어도 제가 편안하다고 하며 자주 물어보았고, 그렇게 진행하다 조별 과제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는 HTML과 CSS만으로 만든 사이트를 다 같이 구현한 것을 합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들 처음 하는 거다 보니  팀원들의 작품들을 전부 합치니까 팀원들의 코딩이 서로 꼬여서 페이지의 이미지가 이상해지는 등의 에러가 생겨 홀로 수정 보완을 하며 여러 번의 테스트를 거쳤고,  결과적으로는 저희 팀의 발표가 가장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후 두 번째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을 때는  처음과는 다르게 HTML, CSS, JS를 사용한 반응형 페이지를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먼저 주도해서 주제 선정부터 시작하여 대화를 이끌어가다 제가 팀장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비록 학생 신분으로 하는 팀 프로젝트의 팀장으로서 시안 발표용 ppt 제작부터 CSS의 변수로 스타일 가이드를 제작하는 등의 처음으로 제대로 된 하나의 일을 진행해 보았고,  이렇게 두 개의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얻은 경험치로  각 상황에 맞게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파악하며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할지 고민하는 신입 웹디자이너가 되겠습니다. |
| **지원동기 및**  **포부** | **[하나의 사용자로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고민을 멈추지 않는 디자이너]**  평소 여러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한 번씩 칸이 삐뚤어져 있다거나 구매 바로 옆에 취소 버튼이 작게 있어서 구매 버튼을 누르려다가 바로 옆의 취소 버튼이 혹은 반대로 구매 버튼이 눌려서 실수로 구매가 된다거나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여러 사이트를 들여다보는 것을 좋아하는 하나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의 불편했던 점과 좋았던 점을 접목하고, 늘 디자인과 관련된 생각과 공부를 하며 나날이 발전시키는  다른 사용자들의 입에서 “이 사이트 정말 멋지다 다음에도 이용해야겠어”라는 소리를 들을 디자인을 하고 싶음을 꿈꿔왔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책임감이 크고 꼼꼼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입사 후에는, 빠르게 적응하여 편하고 아름다운 웹사이트를 디자인하는 웹 디자이너로서 회사 000에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  언제 어디서든 늘 고민과 배움을 멈추지 않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쉽게 나가떨어지지 않는 끈기로  하루에 한 번씩 하나의 페이지를 제작해 낸다는 마음으로 일을 할 것입니다.  언제나 밝은 모습과 함께 성실하고 근면한 태도로 신뢰감을 주며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미묘하게 달라지는 트렌드에 맞는 사이트를 디자인하는,  비록 신입이지만 근성있게 뭐든 빠르게 흡수하며 배워나가는 디자이너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 이력서 요점 !\*\***

**\*** 자기소개서의 각 단락에 헤드라인(머리글)을 작성하면 자기소개서의 문장이 더 살아날 수 있다.

**\*** 학습계획, 정보수집 등과 같은 계획성 및 일관성 있는 내용을 부여하는 것이 좋다.

**\*** 지원분야에 대한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충만해야 한다.

**\*** 충분한 직무분석을 통한 확고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 결과적으로 나는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재라는 점을 강조한다.

**\*** 직무와 유관한 관심사항에 대해 작성하거나 또는 자신의 기술력에 대해 작성한다.

**\*** 이력서는 업체에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타이틀을 수정하거나 삭제한다.

\* 마지막으로 글을 보기좋에 문단의 여백을 주고 들여쓰기 하는 것도 하나의 센스.